

버럭 09월호

Contents

6차 자립생활기술실천'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뮤지컬관람	2
8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볼링교실'	4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6
< 장애인자립주택 > 2018 1권역 연합사업 프로그램'야호 신나는 캠프	8
시각장애인 코디란?	11
칼럼2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13
이달의 정보	15
이달의 시	17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18
광고	19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관람

김지연

지난 9월 12일 자립생활기술실천의 일환으로 뮤지컬관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뮤지컬 관람은 문화공연 관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여가선용을 돕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뮤지컬은 평소 접하기 힘든 문화생활이다 보니 다른 프로그램보다 인기가 많았고 참여자를 선정하는데 평소보다 더 심혈을 기울였다.



점심식사 모습. 맛있는 햄버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참여자들은 집결시간인 1시까지 모두 도착하여 뮤지컬 관람 전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며 뮤지컬 관람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내비추었다. 참여자들과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며 식사 후, 기념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앞에서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다. 단체사진을 찍는 참여자들의 모습이 마치 선물을 기대하는 어린 아이처럼 기대에 부풀어 보였다.



도란도란 얘기 나누어요~ ^^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입장 전까지 참여자들과 함께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미국 아이오와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이탈리아 출신 프란체스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마을에 방문하게 된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 로버트 키키에이드의 이룰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다룬 잔잔하지만 감성적인 작품으로 참여자들은 즐거움을 들으니 직접 눈과 귀로 즐기고 싶다는 기대감을 내비추었다.



뮤지컬이 시작됩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되어 미리 예매했던 좌석에 착석하여 뮤지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참여자들과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 공연이 시작한다는 안내멘트와 함께 불이 꺼지며 공연이 시작됐다. 아름다운 노래가 흘러나오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무대장치와 눈과 귀를 사로잡는 배우들의 연기를 보며 참여자들은 극에 빠져들어 관람을 했다. 잔잔하면서도 화려했던 극이 끝나고 참여자들과 다 같이 모여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만족도 조사지를 작성하며 참여자분들에게 뮤지컬 관람 소감을 여쭙어보니 무대 장치가 정말 화려했고 무대가 움직이며 극의 장소가 바뀌는 장면이 너무 신기했다는 말씀을 해주었으며 배우들의 열연에 뮤지컬을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는 만족감도 나타냈다. 또한 이번 강북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뮤지컬 관람을 처음 경험하게 되었는데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자립생활기술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용자 및 참여자분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담당자로서 뿌듯함을 느꼈다.



6차 자립생활기술실천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뮤지컬 관람 단체사진~

8차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 ‘볼링교실’

정진경



점수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 중

볼링은 신체활동이 다소 많은 프로그램으로 참여분들께서 어려워하시진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자신의 치수에 맞는 신발과 공을 고르는 능숙한 모습에서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송○○참여자와 신○○참여자는 볼링장을 여러 번 이용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로 너무나도 능숙하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변에서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었다.

특히 신○○참여자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쉬지 않고 게임을 계속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송○○참여자는 완벽한 자세와 스트라이크를 쳤을 때 매너있는 에티켓을 보여주어 박수를 받았다.



스트라이크!!! 멋짐 폭발!

9월 19일(수)14:00~17:00까지 8차 발달 장애인 자조모임의 일환으로 볼링교실을 진행하게 되었다. 센터에서 간단히 출석체크를 마친 후 강북볼링센터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볼링을 즐기게 되었으며, 평일 낮 한가한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볼링장에 도착하자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우리를 반겼다.

볼링은 신체활동이 다소 많은 프로그램으로 참여분들께서 어려워하시진 않을까 걱정되었지만 자신의 치수에 맞는 신발과 공을 고르는 능숙한 모습에서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알고 보니 송○○참여자와 신○○참여자는 볼링장을 여러 번 이용한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로 너무나도 능숙하게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어 주변에서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었다.

또한 신규참여자 최○○는 중학교 때 볼링을 몇 번 접해본 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처음이라는 보호자와 말씀이 무색하게 볼링을 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두에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는지 이○○참여자와 최○○참여자는 볼링을 치는데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흥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운동 후엔 역시 떡볶이~~ ^^

그럴 때 마다 참여자들과 스텝들은 누가 먼저 할 것도 옆에 가서 파이팅을 외치거나 손을 잡고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며 게임을 마쳤다. 불령체험이 끝난 후 모두 함께 떡볶이 집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를 하였다.

한바탕 몸을 움직여서인지 모두 허기가 진 표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데 집중하였다.

먹는 내내 모두들 집중해서인지 조용했지만 조금 배를 채우고 나자 신규참여자 최○○씨가 음식점 내에서 뛰는 행동을 보여 보호자와 스텝들이 주의를 주었다. 다행히 최○○참여자의 행동이 과하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많지 않았지만 뜨거운 국물이나 소스를 묻히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 신경을 쓰고 지켜보았다.

이렇듯 신경을 쓰며 참여자들을 살펴보는 도중 신○○참여자가 활동보조 선생님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됨을 알려드리고 함께 저녁식사를 즐겁게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8차 발달장애인자조모임 단체로
찰칵~ !!

저녁식사까지 마친 후 프로그램을 종료하며 소감을 여쭙보자 불령체험이 모두 즐거웠다며 대부분의 참여자가 불령체험을 또 하고 싶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셨다.

소감을 듣고 참여자분들께서 희망하시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차후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우선적이나 다양한 경험 또한 무시할 수는 없기에 참고하여 신중히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후 해산하였다.

강북센터 3분기 직원역량강화교육

< 장애인 조직의 소통 >

박지훈



3분기 직원역량강화교육은
윤삼호 소장님과 함께~

3분기 직원역량강화교육이 <장애인 조직의 소통>이란 주제로 호텔 아트리움에서 09월 13일 ~ 14일 1박 2일 동안 진행되었고, 이번 직원역량강화 교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윤삼호 소장님께서 맡아주셨다. 윤삼호 소장님께서서는 장애인 조직의 소통에 앞서 하버마스(Harbermas)의 의사소통행위론과 인간소통의 행위 및 7가지 소통의 법칙, 그리고 장애인 활동가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천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하버마스(Harbermas)는 소통의 정의를 “언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행위’이다.” 라고 말하였고, 언어 타당성의 조건과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및 이상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의사소통행위론’이란 이론을 만든 사람이다.

하버마스(Harbermas)가 말하는 언어 타당성의 조건은 4가지로써 ①이해가능성: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가? ②진실성: 나의 말이 사실인가? ③규범성(적합성): 나의 말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표현하는가?(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하버마스의 표현일 뿐 소통에 있어서 규범성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④진정성: 내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로 말 할 수 있다. 또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언어 타당성의 조건을 모르거나 언어 타당성의 조건은 알지만, ‘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대화가 안 되어 소통의 부재가 올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 ①세계에 대한 객관적 이해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②진실 된 자기 표현 ③상호 평등한 관계 등이 있다.

인간소통의 행위에는 목적합리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가 있다. 여기서 ‘목적합리적 행위’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의사소통 행위’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즉, “목적합리적 행위”의 예로는 ‘보고서○○까지 제출하세요.’, ‘○○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등이 있으며, “의사소통 행위”의 예로는 ‘오늘 점심 뭐 먹었니?’, ‘주말에 뭐했어?’ 등이 있다. 목적합리적 행위가 의사소통적 행위를 지배하면,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가 올 수 있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상실, 조직과 사회의 위기 및 조직의 목적에 종속되는 개인의 의지와 가치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7가지 소통의 법칙으로는 ①공감: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②경청: 편견과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③통합: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몸짓 언어)를 통합한다. 또, ④스토리텔링: 이야기체로 말하고 자기 경험을 공개하고, ⑤명료성: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명확하고 쉬운 단어로 말하며, ⑥반복과 자극: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고 상대방을 자극한다.(‘초두효과’와 ‘반발효과’) 마지막 ⑦진정성 - 화려한 미시여구보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말한다.(‘공감’ 이 소통의 기본이라면 ‘진정성’ 은 소통의 완성이다.)

장애인 활동가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위한 실천은 다섯 가지로 ①장애의 다양성을 인정하자고, ②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③더디 가더라도 함께 가며 ④일상의 저항을 조직하여 건강한 의사소통 문화조성하며, ⑤장애 정체성을 견지하자! 즉, "나는 장애인이다!"라고 인정 할 때만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의 소통이 문제없이 이루어진다고 말 할 수 있다.



3분기 직원역량강화교육 뒤풀이~

마지막으로 실무자들이 비장애인 직원과 장애인 직원들 간의 소통과 관리에 대해서 윤삼호 소장님과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북센터 3분기 직원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해 주신 윤삼호 소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다.

< 자립생활주택 여가·문화체험 >
1권역 연합사업 프로그램 난지캠핑장
‘야호, 신나는 캠핑’

김다희

9월 6일 연합사업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권역(노원, 남은 자, 양천, 해남 IL) 입주자 분들과의 교류회를 진행하였다. 캠핑을 주제로 한강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난지캠핑장에서 바비큐 파티 및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프로그램 진행 당일! 센터 별 입주자 한 분을 선정하여 함께 장을 보는 것으로 진행 시작을 알렸다.



신○○씨와 장보기~



물품을 차곡차곡 정리해요 ^^

우리 주택은 입주자 대표로 신○○씨와 함께 장을 보기로 하였고, 프로그램 당일 아침 일찍 이마트 가양점으로 입주자 신○○씨와 함께 이동을 하였으며, 장을 보는 내내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다른 입주자를 도와주는 배려심을 보이는 가하면 장을 본 물건 등을 옮기는 일도 도와주시며 솔선수범 하시는 모습을 신○○씨는 보여주었다.



고기 맛이 끝내줘요~~!



즐거운 바비큐 파티!!

드디어 집합장소인 난지캠핑장으로 이동을 하여 바비큐 파티를 시작하였고 삼겹살, 목살, 소고기 등을 열심히 굽고 먹으며 바비큐 파티를 즐기는 입주자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더운 날씨에 화로 앞에서 고기를 구우시느냐고 고생하신 활동보조사 선생님들에게도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바비큐 파티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



풍선배구 게임을 신나게~



빨대를 이용한 양파링 게임을 즐겨요~

바비큐 파티를 마친 후 레크리에이션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를 하였고 먼저 보물찾기

2018년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게임을 진행하였다. 보물찾기는 개인전으로 총 6개의 보물과 21의 낱으로 진행되었고, 아쉽게도 우리센터 입주자 분들 중 보물을 발견한 분들은 없었지만 마지막 소감나누기 진행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게임 프로그램으로 뽑혔으며,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레크리에이션을 제대로 준비하고 계획하여 진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밖에 양파링 게임, 풍선 배구, 보물찾기 등 모든 레크리에이션을 마무리하였고, 캠핑에 참여하신 1권역 입주자 분들이 모여 소감나누기를 진행하였고, 공통적인 의견으로 탈 시설을 하여 자립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음 교류회 모임의 기회가 생긴다면 입주자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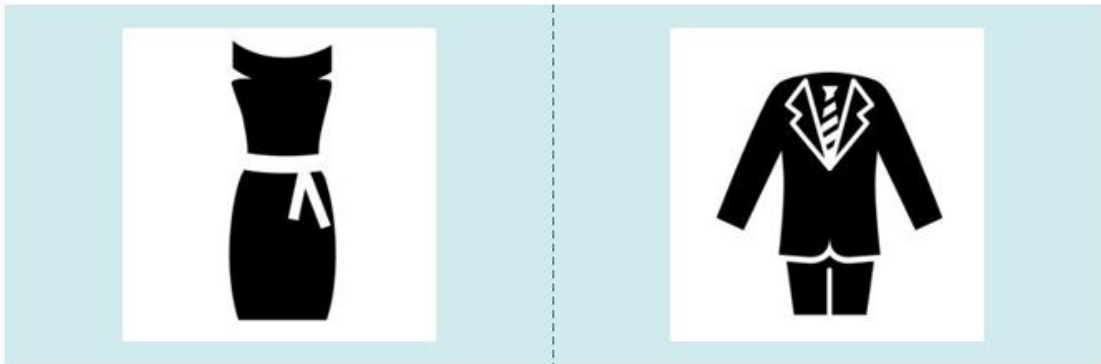
'야호', 신나는 캠핑 단체사진

‘시각장애인 코디’

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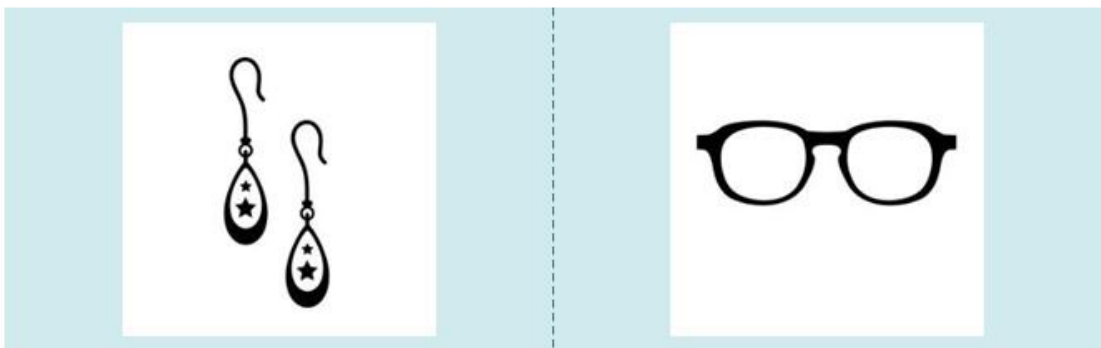
‘시각장애인들은 옷을 입을 때 코디는 어떻게 할까?’

‘시각장애인들의 코디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직업) 있을까?’ 라는 궁금증으로 이번 칼럼을 시작하였다.



다양한 성격이 있듯이 개인마다 선호하는 옷 스타일과 패션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유행에 따라 맞춰 입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행과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코디하여 입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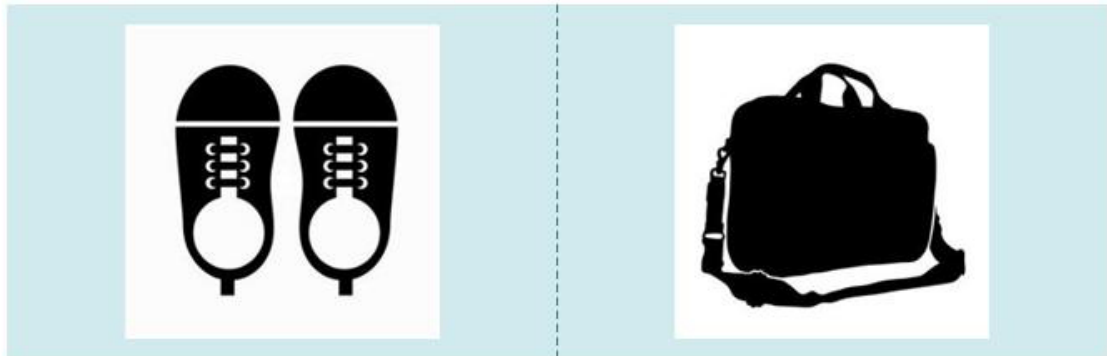
이렇듯 시각장애인들도 각 개인마다 선호하는 옷 스타일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색깔이 어울리고 어떤 질감이 어울리는지 또 어떻게 코디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시각장애인들의 의상 코디를 도와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은 따로 없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미지 메이킹 코디 활동’

또는 ‘패션 코디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코디는 의류 매장을 동행하여 옷의 재질 등을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고, 옷의 재질이 부드러운지, 까끌까끌한지 등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색상 또한 어떤 색상인지 설명을 통해 본인이 입을 옷이 어떤 재질이며, 어떤 색상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이미지 메이킹 코디’ 또는 ‘패션 코디 사업’은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의상의 색상과 재질을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지니고 있는 개성과 각자의 멋을 뽐낼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럼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성취감과 함께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재미를 깨우치게 하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패션코칭이란 직업이 전문화되어 좀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옷을 각자 개성에 맞은 자기표현이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기다린다.

자료출처

https://ko.silhouette-ac.com/search-result?page=4&keyword=패션&is_tag=true&per_page=100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00102#cb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774297&memberNo=36619719>

<http://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85>

[본 글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오예진

유니버설 디자인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의 유래는 미국의 건축가인 로널드 메이스는 자신의 철학인 "모든 나이와 능력을 위한 디자인"을 나타내기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은 7개의 원칙이 있다. 첫 번째,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가, 두 번째 다양한 환경적 제약에서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 세 번째 사용법이 직관적이고 간단한가, 네 번째 디자인이 전달하는 정보의 습득이 용이한가, 다섯 번째 사용이 있어 위험과 실수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한가, 여섯 번째 사용이 편리한가, 일곱 번째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용 조건에서도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는가이다.



차체의 바닥이 낮은 '저상버스'로,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는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례로, 누구나 불편함 없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은 사용상의 융통성으로, 다양한 환경적 제약에서 사용가능오른손과 왼손의 구분 없이 사용가능하며 발 혹은 입으로도 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졌다. 또한 펜을 잡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손가락을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손가락 사이에 펜을 끼워

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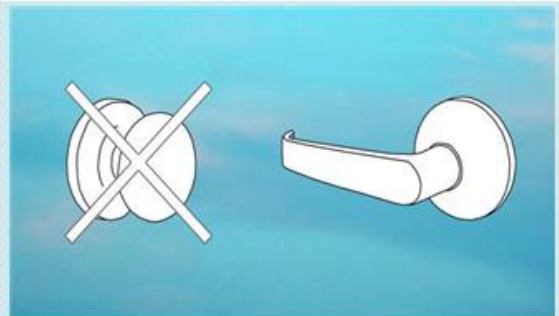
이 디자인은 간편하고 직관적인 사용이다. 약력이 약한 노인도 직감적으로 쉽게 뺄 수 있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보았을 때 직관되는 기대와 일치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부합되는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은 정보 이용의 용이로, 층수와 계단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게 해주는 안내 사인이다. 정보구조가 간단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디자인은 오류에 대한 포용력으로, 사용자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칼라에 꽂기만 해도 책을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한 TV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디자인은 적은 물리적 사용의 예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무리한 힘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자세로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손잡이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모든 디자인의 기본이 되어 장애와 무장애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자료출처: <https://blog.naver.com/sdh6529/220064490578>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385979&memberNo=5583016>

[본 글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달의 정보

인상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만원, 20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초급여는 2014년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고, 지난달까지 월 최대 20만9960원이 지급됐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고,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달 20일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 기초급여가 지급된다. 내년 4월에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를 5만원 조기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월 최대 8만원)와 함께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또한 부가급여에 변동이 없다면 내년 4월부터는 월 최대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38만원이 된다.

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현재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향후 2021년에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80919121810116546>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홍보영상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시험장장 정우택)이 지난 17일 최신 맞춤형 홍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장애인운전지원센터 홍보영상을 유튜브(Youtube)에 게재했다.

홍보영상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1~4급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절차,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전국 7개 시험장에 개소되어 있는 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유튜브 영상은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로 검색해 시청하면 된다.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2&NewsCode=000220180918125049024633>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버리라.
과거의 상처를 되씹고 있는 한
현재에 행복을 느낄 수 없다.

스스로 무조건 행복해지기로
마음먹고 행복한 상황을 선택하라.
자신의 마음 하나만 제대로 절재 할 수 있다면
세상의 행복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각자의 소중한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것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중함과 감사함을 잊지 말라.
소중한 것은 언제 떠날지 모른 일이며
감사할 일은 언제 다시 올 줄 모른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습관을 가지라.
자신에게도 감사와 행복의 말을 전하는 것을 잊지 말자.
내일을 위해 오늘 참는 것과 오늘 불행한 것은 다르다.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긍정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씩 바뀌가는 훈련을 하라.
세상은 늘 좋은 것만 혹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남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내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일단 자신의 일에 충실할 뿐이다.

자신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후
그래도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라.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있을 수 없다.
남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되려고 하라.
남은 어디까지나 남일 뿐이며
결국 세상에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 납 업 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 납 목 적	회원회비
대 표 자	정종남	사 업 자 등 록 번 호	210-82-68864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 청 정 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매월 25 일 *미납시 일, 일 재출금
금 용 거 래 정 보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 인 정 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호성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활 용 동 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호성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단 신청가능은행 참조), 통신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게시(www.efn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이용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등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할 [] 동의하지 않을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호성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호성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8년 09월 회비납부 명단

김낙현 김석현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박동열 박민숙 박지훈 배소영 손연숙 안해영 오재준
 윤두선 이동현 이상훈 이영훈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윤숙 최전균 허효숙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자립생활기술실천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쉼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기술실천 발달장애인 힐링캠프'쉼터'를 2018년 10월 25일(목) ~10월 26일(금)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발달장애인 힐링캠프 프로그램은 가족 및 사회구성원과의 상호교류 및 사회적 향상과 문화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를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아래와 같이 7차 자립생활기술실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자립생활기술실천 - 발달장애인 힐링캠프'쉼터'
사 업 내 용	남이섬 관광, 바베큐 파티, 레크레이션(보드게임, 클레이아트)등
일 시	2018년 10월 25일(목) ~ 10월 26일(금) 1박 2일
장 소	남이섬 인근 펜션(추후 공지)
모 집 인 원	6명 (발달장애인 3명, 보호자 3명, 총 6명)
모 집 조 건	- 강북구(우선순위) 및 서울지역 거주 발달장애인 3명 - 강북센터 프로그램 신규참여자 우선순위 - 발달장애인 가족단위 신청자 우선순위 (단, 보호자 동행이 어려울 경우 기관에 활동지원사 사전 요청 후 신청 바람)
참 가 비	무료(교통비 제외)
신 청 서 류	신청서, 복지카드사본(신규참여자)
신 청 기 간	2018년 10월 22일(월) 오후 5시까지
선 정 발 표	2018년 10월 23일(화) 선정자 개별 문자 또는 전화 공지
신 청 방 법	강북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또는 사무실(수유역 가든타워 1119호) 방문접수
기 타 문 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02-996-7776 ✉ kbcil@daum.net

* 위 일정은 센터 사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구)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